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

함 이기보까?



손흥민, BTS, 오징어게임에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띄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유치경쟁 중인 세계 유력도시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량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유치 예상효과	개최기간 2030. 5월~10월	개최장소 부산북항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명	경제적 파급 효과 61조원	일자리창출 50만명
---------	----------------------	----------------	-------------------------	-------------------	---------------



부산체육
2023. 03 Vol. 52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52**
2023. 03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아시아스하키협회
조우현 회장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이슈 & 포커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
장인하 회장 취임

부산광역시체육회

CONTENTS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3. 03 Vol. 52



발행일 2023년 3월 21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52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성기환
편집·취재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체 체육 발전

04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아시아스하키협회
조우현 회장

08
영광의 인물
부산광역시낚시협회
이택우 원로

12
부산체육의 미래
부산스포츠과학센터

16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 3법 제정
부경대학교 김대회 교수



04

20

인 인화 소통

20
뉴스포츠 소개
배산초등학교 플라잉디스크부

24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26
달려라 부산체육
궁도 동호회 사직정(社稷亭)

30
이슈 & 포커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
장인화 회장 취임

34
부산스포츠 기자단
부산 League Royale
주짓수대회를 찾아가다

지 지식 나눔

36
스포츠 PLUS +
강렬한 서틀콕의 향연
배드민턴

40
스포츠 Job
스포츠 시장을 움직이는
스포츠마케터

42
건강 라이프
소중한 내 눈건강을 해치는
안구건조증

44
스포츠 정보 알림
스포츠과학센터

업 업글 소식

48
문화 공간
전시소개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

50
BSC 뉴스
- 부산선수단,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역대 최다메달 35개 획득
-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개관

52
회원단체 소식

56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58
공공스포츠클럽 소식



26

30



아이스하키 불모지에서 피운 열정의 꽃

부산광역시아이스하키협회장 제5대 회장
대선주조 대표이사 조우현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아시아 리그
정상에 올라섰다. 정규리그 우승은 6년만.
점차 아이스하키가 대중에게 친근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하키를 향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산광역시아이스하키협회
조우현 회장을 만나보았다.

협회 목표는
청소년 팀을 이룰 수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선수의 꿈을 향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감한 팀플레이의 매력,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는 스틱과 퍽을 이용한 빙상 경기로, 심판이 떨어트리는 퍽을 스틱으로 서로 빼앗는 페이스오프(face off)로 경기를 시작한다. 20분씩 3피리어드로 진행되며 퍽을 쳐서 상대 골문에 넣으면 득점이 된다. 1924년 사모니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지금까지 동계올림픽대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실제로 아이스하키 경기 모습을 관람하면 빠르게 진행되는 속도감과 선수들의 과감한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조우현 회장이 그 매력을 처음 접한 건 중학교 때였다.

“중학교 때는 지금처럼 전문 스포츠 채널이 없다 보니, 주한미군 방송인 AFKN 채널에서 방영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게 큰 재미였습니다. 메이저리그나 NBA는 물론이고 아이스하키도 그때 접했죠. 경기 중 선수들끼리 1대1로 몸싸움을 하는 등 역동적이고 시원시원한 경기 진행에

굉장히 호감이 갔습니다.”

아이스하키 경기를 위해서는 빙판 위에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스케이트 실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몸의 균형과 스틱으로 퍽을 치는 정확성이 중요한 복합 운동이란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 스틱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퍽을 가지고 빠르게 쳐나가는데, 퍽을 치는 힘과 속도가 빨라서 보호장비를 입고서도 민첩함이 남다르죠. 그렇게 보는 걸 즐기다가, 주변에서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하시는 분 덕분에 직접 해보게 되었습니다.”

TV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입체적인 팀 플레이를 경험한 조 회장은 부산에서도 아이스하키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다 아이스하키협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지금까지 부산광역시아이스하키협회와 함께하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아이스하키 불모지에서 이룬 성과

부산 아이스하키팀은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수차례 메달을 획득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간 것은 7여 년 전 초등부 부산마리나팀이 첫 은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2022년 2월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제103회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엘리트가 아닌 클럽팀이 사상 첫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끊임없는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부산에는 정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경기장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한 곳은 잘 못 쓰고 있고요. 연습을 많이 하고 싶어도, 아이스하키 전용으로 링크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 한정된 시간 동안에 최대한 연습해야 합니다.”

사실상 부산은 아이스하키 불모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뚝뚝 땀 흘려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되어 기쁘다는 조우현 회장.

현재 부산마리나클럽은 유소년부가 뛰고 있는데, 선수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덕분에 그는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아무래도 클럽에 소속된 선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다보면 현실적인 개선점과 대안을 알 수 있고, 소통을 통해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을 모색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좋은 지도자를 찾고, 선수를 꾸

준히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 대표팀에서도 백지선 감독이 부임한 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감독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수들의 기량을 알아보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꾸준함이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백지선 감독은 한국인 최초 NHL 선수 경험을 통해 한국 아이스하키의 세계랭킹을 25위에서 16위로 끌어올린 아이스링크계의 히딩크 감독이라고 불린다. 조우현 회장은 부산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자와 선수들을 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 부산에도 아이스하키를 잘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선수지만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협회 목표는 청소년 팀을 이룰 수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꿈을 향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변을 넓히는 일

조우현 회장은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 아이스하키 저변을 넓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스하키 전용 아이스링크장이 없는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하키를 축구나 농구처럼 많은 사람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산에서도 아이든 어른이든 자유롭게 아이스하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육성될 가능성도 커지죠.”

아이스하키가 격동적이고 스피디한 스포츠인만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 아이들이 임하는 경기는 정규 리그와 다르다. 부상 방지를 위한 보디체크(1 대 1 몸싸움)가 허용되지 않으며, 보호장비 착용에 엄격하다. 아이들이 아이스하키에 입문할 때는 스케이트를 타는 법, 퍽을 치는 법 등 단계별로 하나하나 배울 수 있다. 덕분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많은 아이들이 클럽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활발하게 임한다.

“스포츠를 즐기는 데 있어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선수들이야 이미 모든 훈련 과정을 겪고 충분히 프로 들이기에 아이스하키의 매력적인 모든 부분을 활용할 것지만, 아이들은 안전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고, 가장 중요한 팀 플레이를 배우며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스포츠가 되도록 아이스하키의 매력과 장점을 알리는 것이 협회의 첫 번째 과제라는 조우현 회장. 아이스하키가 국민 스포츠가 될 그날까지, 부산광역시 아이스하키협회의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을 기대한다.

인생의 재미를 낚다

부산광역시낚시협회
이택우 원로

FISHING

낚시는 주로 '인생', '세월' 같은 단어와 함께 언급된다. 그렇다보니 어르신들의 취미라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다양한 매스컴의 영향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즐기는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이택우 원로는 낚시를 시작한 지 40년은 족히 될 거라고 한다. 낚시의 어떤 점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사로잡았는지 알아보자.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40년 낚시 인생의 첫 캐스팅

낚시는 유독 마니아층이 즐기는 취미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낚시를 하려면 바다나 강, 하다못해 실내 낚시터 등 물고기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 데다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남다른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날씨, 장비 등 적지 않은 제약들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시간을 들여 노력한다고 해서 실력이 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 낚시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것들을 감수하기 어려울 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낚시에 진심인 마니아들만 남게 되는 게 아닐까.

“회사 야유회에 갔다가 낚시하는 동료들을 따라 처음으로 낚싯대를 물에 담가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낚싯바늘이 무언가에 걸려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물에 걸린 줄 알고 낚싯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끌어올렸더니 문어가 잡혀 올라왔어요.”

이택우 원로가 생애 첫 낚시로 잡은 문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맛있게 삶아 다 같이 나눠 먹었다. 당시 이택우 원로는 사내 산우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을 계기로 낚시회 활동을 시작했다. 산우회와 낚시회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힐링할 수 있다는 점은 닮았지만, 낚시회는 직접 잡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이 더 매력적이었다. 이택우 원로는 부산일보에서 26년을 넘게 근무하고 1999년에 퇴직하면서 낚시회 동료들과 '부일OB낚시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하게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낚시를 하러 가는 곳은 확실히 공기가 맑아요. 그래서 낚시 한 번 갔다 오면 석 달 오래 산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감기가 낚시를 다녀오고 나온 적도 있어요.”

일흔을 훌쩍 넘긴 이택우 원로의 건강 비결 역시 낚시라고 한다. 요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낚시를 하러 가는데, 바다며 강이며 교외로 갔다가 시내로 돌아오면 공기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고. 사실 이택우 원로는 그저 즐거움을 위해 낚시를 한다. 간혹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냐는 불멘소리를 들을 때면 “어부도 물고기를 못 잡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부냐, 우리는 낭만 삼아 치유 삼아 낚시를 하는 거”라며 낚시에 대한 소신을 밝힌다. 그렇다고 그가 물고기를 잡는 데 관심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다. 말 그대로 연연하지 않을 뿐.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바로 회를 쳐서 먹는 재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갯바위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할 때도 많다.





그리고 낚시할 때 우선으로 여기는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절대 혼자서는 낚시를 하러 가지 않고, 모임에서 낚시 장소를 물색할 때면 여럿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하기 위한 답사도 필수이다. 수시로 날씨를 체크하는 건 낚시꾼의 기본. 그런데 이렇게 조심하는 데도 한번은 배를 타고 바다낚시를 갔다가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 지나가는 해경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그때의 경험 덕분에 안전을 더욱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다.

반면, 민물낚시는 야간에 참 매력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바다낚시의 재미가 물고기를 잡는 거라면 민물 낚시의 재미는 풍경 감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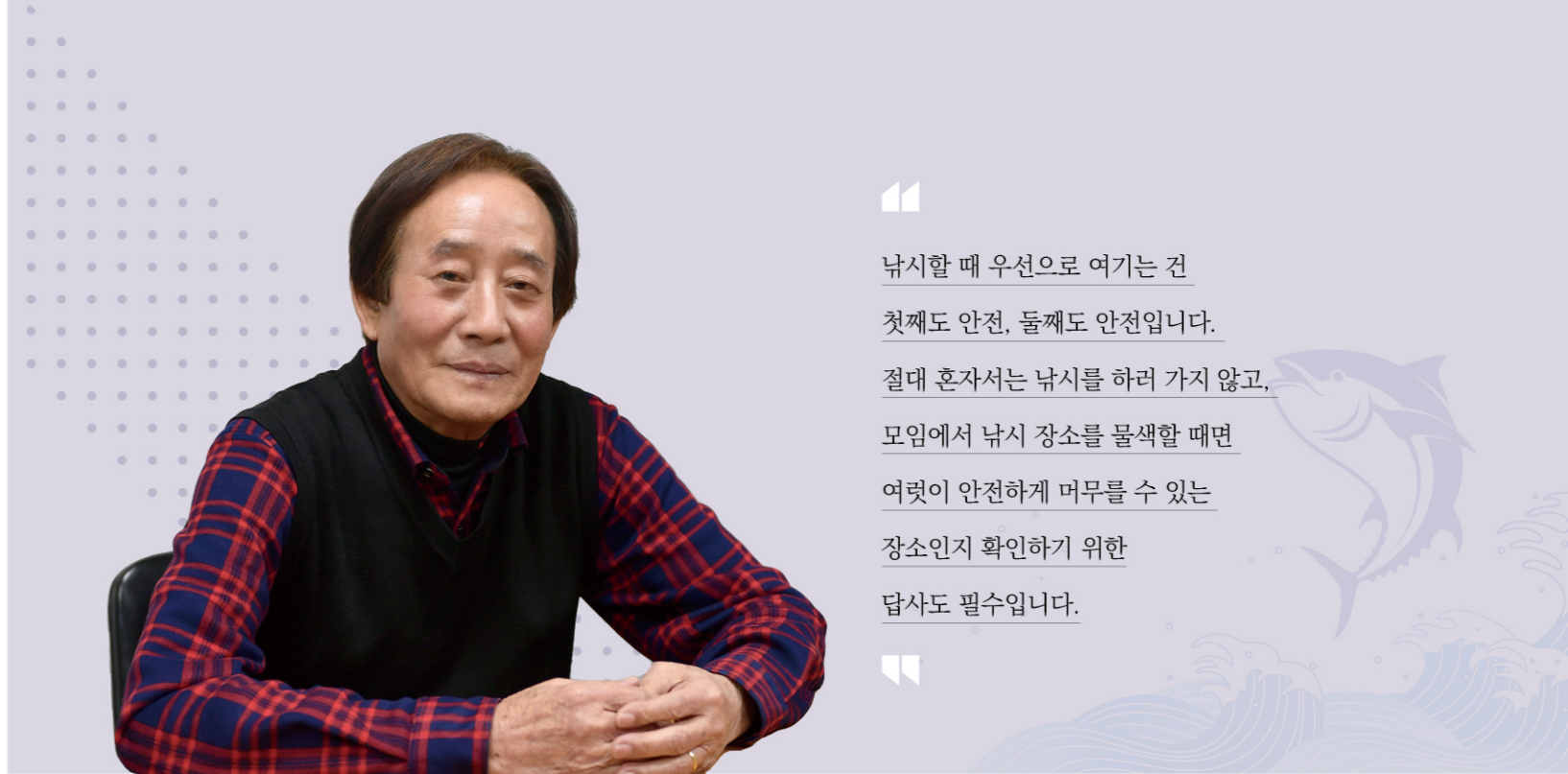
“잔잔한 물 위에 케미라이트가 별빛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조용한 밤에 개구리 울음소리는 어느 악단의 연주 소리 같기도 하고요. 아침에는 물안개가 강가에 운치 있게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싱싱한 음식을 맛보는 걸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이택우 원로. 그는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한 낚시를 계속할 거라고 한다.

좋은 날에 만드는 좋은 추억

이택우 원로가 낚시를 좋아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좋은 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하고 이런 모임이 없으면 다들 얼굴 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봄철 4개월은 민물, 가을철 4개월은 바다, 가장 춥고 더운 1~2월과 7~8월은 식당에 가는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식구도 싸울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싸울 일 없이 우애가 돈독합니다.”



“ 낚시할 때 우선으로 여기는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낚시를 하러 가지 않고, 모임에서 낚시 장소를 물색할 때면 여럿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하기 위한 답사도 필수입니다.”

10여 년을 전국낚시협회와 부산광역시낚시협회 감사로 지내다 현재 부산광역시낚시협회 대의원을 맡고 있는 이택우 원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각종 대회들의 재개를 위해 애쓰는 중이다. 오래전이지만 낚시 대회가 활발했던 시절, 대회가 열리는 곳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고 한다. 낚시 대회는 ‘감성 돛 두 마리 잡기’, ‘25센티미터 이상 대어 잡기’ 등의 과제하

에 치러진다. 지역별 특징을 살린 대회가 개최되면 그 지역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그런 대회에서 한두 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친해지는 게 낚시 대회의 묘미인 것이다. 낚시꾼이 낚시하러 간다고 하는 날은 날씨가 좋은 날일 확률이 높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도 좋아지는 법. 이택우 원로의 낚시 예찬을 듣고 나니,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진다.

PROFILE

주요 이력

- (전) 전국낚시협회 감사
- (전) 부산광역시낚시협회 감사
- (현) 부산광역시낚시협회 대의원
- (현) 부산일보OB낚시회 회장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부산 스포츠, 과학을 만나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개관으로 국가대표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 지원 서비스를 부산 관내 전문 선수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 힘찬 걸음을 내딛은 부산스포츠과학 센터를 만나보자.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출범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부산광역시 체육회와 부산광역시의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22년 신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자 선정' 사업에 선정되면서 설립되었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사업은 시·도별로 스포츠과학센터를 구축하여 해당 전문 선수에게 스포츠과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전문 체육을 강화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예전에는 경기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선수에게 요구했다면, 이제는 스포츠에 과학을 접목해 선수 개개인별 역량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선수의 컨디션은 물론 멘탈 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심리 상담, 부상 예방교육 등 다양한 스포츠과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 개관식을 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그 시작을 맡게 된 장선미 센터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센터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한데요. 부산스포츠과학센터만의 특별성, 타 센터와의 차별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최첨단 장비

근력·근지구력·평형성·유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체력 측정 장비부터 운동부하검사, 젖산분석 등 전문체력 측정 장비와 운동역학 측정 장비 영상분석, 근전도 측정 등 총 29종의 전문 장비가 구축되어 있다.



CENTER
FOR SPORTS
SCIENCE IN
BUSAN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의 시너지**

국가대표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스포츠과학센터에는 최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다. 근력·근지구력·평형성·유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

초체력 측정 장비부터 운동부하검사, 젓산분석 등 전문체력 측정 장비와 운동역학 측정 장비 영상분석, 근전도 측정 등 총 29종의 전문 장비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전문체력측정실을 3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했는데요. 이는 측정 시 선수들의 집중도를 향상시켜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시하기 위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에는 8명의 전문 인력이 있다. 스포츠 생리학·역학·심리학 등 분야별 박사급 연구진과 측정 요원 및 전문 트레이너가 상주하고 있어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과 훈련 가이드 제공은 물론 심리검사 등의 전문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전국 최초로 부설기관인 ‘스포츠헬스케어센터’를 구축해 타 센터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스포츠과학센터와 스포츠헬스케어센터와의 선수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부상 선수들의 조기 회복 및 우수 선수들의 컨디셔닝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지도자·선수·학부모가 함께하는 ‘스포츠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스포츠과학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체육의
미래를 위하여**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개관 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 이미 많은 부산 체육 선수들이 방

문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장 센터장은 지난 2월 말 수영구 스포츠클럽 꿈나무 선수와 학부모의 방문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선수들은 기초체력 측정을 통해 스포츠과학 지원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선수들의 측정 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과학적 시스템으로 알려드릴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꿈나무 선수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특히 꿈나무 선수들에게 스포츠과학 서비스를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하며, 그중 우수 선수를 선발해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개관 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 이미 많은 부산 체육 선수들이 방

문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단발성이 아닌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꿈나무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훗날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에서 활약하는 부산 선수들을 곧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웃음)”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오는 5월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10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산 선수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5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 예정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력이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선수들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센터장 장선미입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최첨단 장비는 물론 수준 높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스포츠과학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산체육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수 및 지도자와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체육 현장에서의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며, 늘 배운다는 자세로 소통하고 원만한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수와 지도자가 믿고 찾는 센터, 희망이 함께하는 센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센터가 되도록 부산스포츠과학센터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장선미 센터장

기획연재 ①

스포츠 3법 제정



스포츠는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스포츠는 이제 일부 선수만이 하는 운동이나 대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참여해야 하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스포츠계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스포츠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체육계 환경변화를 반영해 최근 「스포츠기본법」을 비롯하여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 등 스포츠 3법의 시행과 함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방체육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스포츠 3법 제정과 국정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rofessional Experience



글 김대희 교수
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해양스포츠전공)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박사
- 現 한국체육정책학회 상임이사
- 現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입등급심의회 위원
- 現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경영혁신자문단 위원
- 現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 위원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 3법 제정과 의미

전문·생활체육 단체 간 통합 이후 5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순환 스포츠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였다. 이에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참여 중심의 스포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스포츠기본법」을 통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고, 「스포츠클럽법」을 통해 스포츠클럽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인복지법」을 통해 체육인의 보편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스포츠 3법’이 제정되었다.

「스포츠기본법」은 법률 제18380호로 2021년 8월 10일 제정되어 2022년 2월 11일에 시행되었으며,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적 개념을 마련하였으며, 국민들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스포츠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스포츠 분야별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클럽법」은 법률 제18252호로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어 2022년 6월 16일에 시행되었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지정스포츠클럽 요건 등을 규정하고,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체육인복지법」은 법률 제18381호로 2021년 8월 10일 제정되어 2022년 8월 11일에 시행되었으며,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인복지 정책의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체육인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3법의 제정을 통해 선진 스포츠 환경 구축 및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을 위한 보편적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 중심의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 3법과 기존 체육관계 법령의 유기적인 연계와 함께 체계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 스포츠 3법과 국정과제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 시행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국정과제 중 스포츠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목표는 **첫째, 생애주기별 스포츠활**



동 지원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확대. 둘째,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셋째,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넷째, 국제스포츠 인재양성과 국제교류 확대로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지원과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마일리지(인센티브) 및 소득공제를 위한 체육시설 기반 확충과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로 개편 등이 있다.

둘째, 전문체육 환경 개선은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셋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은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등이 있다.

넷째,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는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경로 개발),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E-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23년 2월 14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엘리트 스포츠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정부는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스포츠산업이 더욱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스포츠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해 나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스포츠 종목별 과학적 연구 개발이 스포츠 산업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선 엘리트 스포츠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세계 일류 선수가 되도록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 전문가의 삶을 이어가도록 정부가 재정과 시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복지를 추구하는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공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스포츠 인프라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생활스포츠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며,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 스포츠 3법의 제정을 통해 선진 스포츠 환경 구축 및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을 위한 보편적 스포츠 복지실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



재미는 기본,
체력과 인성도 쑥쑥!

배산초등학교 플라잉디스크부



플라잉디스크란?

플라잉디스크는 1940년대 미국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근처에 있는 프리스비 베이커리에서 파이를 먹고, 반침대인 접시를 던지며 놀던 것을 보고 착안해 만들어진 종목이다. 플라잉디스크의 세부 종목으로는 두 팀이 서로 마주보고 원반을 던지고 잡아내 먼저 득점하는 거츠, 원반을 날려 몇 번 만에 골을 넣는지 겨루는 디스크 골프 등이 있다. 배산초등학교 플라잉디스크부에서 주로 하는 얼티미트(Ultimate) 종목은 럭비와 상당히 유사한데, 쉽게 이야기해 신체 접촉 없이 원반을 던져 상대방 진영에 패스하면 되는 종목이다.

배산초등학교 강당에 들어서면 디스크 원반이 공기를 가르며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원반을 안정적으로 낚아채고, 다시 던지는 학생들의 모습에 생기가 가득하다. 이토록 활력이 넘치는 배산초등학교 플라잉디스크부를 만나본다.

이재천 지도자 인터뷰

Q. 배산초등학교 플라잉디스크부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우리 부는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2017년도에 처음 접했습니다. 원래 축구나 풋살 종목을 지도했었는데, 플라잉디스크가 공간을 찾아가는 능력 등 여러 부분에서 축구와 움직임이 비슷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라'는 마음으로 처음 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요건도 필요하지 않고,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다 모여서 활동했습니다.

Q.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훈련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40분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했을 때는 방학 중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완화되어서 방학 때에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기 중이나 방학 구분을 두지 않고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에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Q. 플라잉디스크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다른 스포츠와 차별점이 있다면?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장비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디스크 원반과 공간만 확보된다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재미도 있고요. 플라잉디스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던 학생들도 얼티미트를 접하게 되면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빨리 마치고 싶어도 아이들이 계속 훈련하자고 조르기도 한답니다.

Q. 학생들의 안전이나 스포츠맨십을 위해 신경쓰는 점은 무엇인가요?
경기 중 신체 접촉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플라잉디스크도 공중에 뜬 원반을 서로 잡으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함께 학생들에게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일러 줍니다.
이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이유를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인생'에 초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수업 방해로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가는 학생들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운동이라는 기능보다는 스포츠맨십과 매너를 우선으로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력 증진을 돕거나 사회성 교육, 성취감 등을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플라잉디스크부를 어떻게 운영해나가고 싶으신가요?

운영하다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과 후 학업의 이유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체육시간에 원반을 가져와서 할 수는 있는데, 플라잉디스크가 단순히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재미로 던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얼티미트와 같은 게임을 할 때 뛰면서 움직임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상 아이들한테 지도해야 할 영역이 정해져 있으니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Q. 아이들이 플라잉디스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갔으면 하시나요?

교사 생활을 오래하니 늘 똑같은 생활, 똑같은 일상인 학교가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재미가 없는데 학생

들은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시작한 게 플라잉디스크입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자고 시작한 일이 저도 즐겁고, 아이들도 즐겁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순 없지만,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다'는 신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Q. 플라잉디스크를 시작하기 망설이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번에 좋은 기회로 부산시 교육청 정책 사업 중 '아침 체인지(體仁智)'가 생겼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침 활동이 가능해지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르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거나 원대한 목표를 갖진 않더라도, 순수하게 활동을 즐기는 형태라도 운영하고 싶습니다.



학생 인터뷰

Q. 학생에게 플라잉디스크는 어떤 의미인가요?

손효주 주장 : 저는 플라잉디스크가 친구 같아요. 친구랑 있으면 재밌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잖아요. 플라잉디스크도 그런 것 같아요.

곽소정 학생 : 저는 스트레스 해소제 같아요.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힘들 때 플라잉디스크를 하다보면 그런 생각들을 잊게 되거든요.

Q. 플라잉디스크의 매력은?

손효주 주장 : 협동심과 순발력 등을 플라잉디스크라는 종목 하나로 배울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피구 같이 다른 운동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떨어지는 물건이 있으면 다 잡을 수 있게 됐어요. 물건이 깨지거나 주변 친구들이 다치지 않아서 좋아요. 플라잉디스크로 배운 순발력 덕분이 것 같아요.

Q. 플라잉디스크부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곽소정 학생 : 플라잉디스크 중 '런닝패스'라는 동작이 있는데요. 한 친구가 런닝패스가 잘 안 돼 속상해하더라고요. 친구를 다독이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Q.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플라잉디스크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나요?

손효주 주장 :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서 꼭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고 싶어요. 너무 승부욕이 앞서서 친구들이랑 다투는 일 없이 사이좋게, 건강하게 훈련을 이어나가고 싶어요.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분주한 도시의 높은 건물 사이를 벗어나 푸르른 공원 옆에 자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이곳은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화합과 단결을 이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고 있다.

Q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이하 부산진구체육회)는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라는 슬로건에 맞춰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캠프, 청소년 체력캠프, 장수체육대학,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다문화가정생활체육지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유아체육활동지원, 백양산 숲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Q 부산진구체육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체육회가 모두 참여하는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는 종합 준우승, 여성체육대회에서는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Q 부산진구는 지역민 참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으로 여가 활동과 체력 증진,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배드민턴, 탁구, 필라테스, 근력운동, 소도구 트레이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인 1종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진구체육회만의 특화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는 부산시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구분 없이 참가해 백양산이 품고 있는 성지곡수원지의 숲길을 천천히 걷는 대회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걷기 좋은 성지곡수원지 일대의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추억도 쌓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취지의 행사로 매년 1,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를 완주하면 기념품도 제공해드리고 있어 일석삼조의 즐겁고 유익한 대회입니다.

골드윙동경연대회는 부산진구 관내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평소 생활체육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노인질환 예방 및 건강 향상을 위해 평소 꾸준히 운동하며 활기찬 노후를 실현하는 부산진구 어르신들의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가종목으로는 건강 체조를 비롯해 댄스 스포츠, 고전 무용, 벨리 댄스 등 다양한 분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채점한 결과를 통해 대상을 거머쥐는 성취감까지 누릴 수 있으므로,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은 대회 중 하나입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

Q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과 고령화 시대에 맞춘 이색 프로그램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 트레이닝 열풍이 이어지는 흐름에 맞춰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도 구민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백양산 등 부산진구만의 특색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해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민족의 혼과 얼을 쏘다! 사직정(社稷亭)

사직정 사대에 올라서면 탁 트인 풍경에 절로 마음이 차분해진다. 바람과 온도를 느끼며 활시위를 잡아당기자, 145m 거리를 순식간에 날아간 화살이 과녁에 '탁!'하고 꽂힌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국궁(궁도)을 즐기며 활쏘기의 명맥을 잇고 있는 사직정을 찾아가 보았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Q. '궁도'와 '사직정'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궁도는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무예로서 과거에는 고관대작의 전유물이었으나, 50여 년 전부터는 모든 이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에는 50년 전통의 구덕정을 비롯해 수영정, 낙동정, 사직정 등 총 4개의 정이 있습니다. 사직정은 부산광역시궁도협회에서 1993년 1월 1일 건립 계획을 세운 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제81회 전국체육대회의 궁도 종목 경기 운영을 위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현재 사직정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Q. 궁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활을 쏘는 또 다른 종목인 양궁과는 달리 궁도에는 조준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수의 감으로 활을 쏘아 하는데, 활시위를 당겨 쏘기까지 3~4초 동안 날씨, 온도, 바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살을 쏘아 145m 거리에 있는 과녁에 명중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신 건강에도 좋아, 궁도를 즐기시는 분들은 치매가 없습니다.

Q. 궁도인들은 사직정을 어떤 경로로 찾아오나요? 또한 사직정의 운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영화 <최종병기 활>을 통해 대중에게 궁도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TV 프로그램에서 궁도를 생활 체육으로 즐기는 분들을 보고, 지인들의 소개나, 수소문해 찾아오고 있으며, 현재 600여 명이 궁도를 즐기기 위해 사직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직정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회차별로 화살을 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7명입니다. 한 번에 한 순(다섯 발)의 화살을 쏘고, 쏜 화살을 다시 주워 옵니다. 그렇게 총 아홉 순을 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활을 제대로 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활을 당겨 145m 거리의 과녁을 맞히려 하면 여성은 40~43파운드(약 18~19.5kg), 남성은 45~50파운드(약 20~23kg)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당장 활을 당기기 힘들죠. 그래서 활시위를 당겼을 때 다치지 않기 위해 사범의 지도에 따라 기본적인 자세를 습득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점점 파운드를 높여갑니다. 단계를 빨리 밟아가면 보름 만에, 조금 늦는 분들은 두 달이 되면 사대에서 활을 올바르게 쏠 수 있습니다.

Q. 회원은 어떻게 뽑고 있으며, 사직정에서 활동하는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사직정의 경우 만 13세부터 9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궁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중 박운봉 고문님은 올해 91세이신데,

작년에는 집궁회갑(활을 쏘기 시작한 햇수가 60년이 됨)을 맞이하셨고, 지금도 매일 같이 사직정을 방문해 활을 쏘고 계십니다. 또한 신라대학교에 재직하셨던 캐나다인 교수님께서도 궁도의 매력에 빠져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 4단을 취득하셨습니다.

Q. 사직정에서의 모임은 따로 있나요?

자체적으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직정이 개정(開亭)한 9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대회가 열리며, 상시 대회는 3개월마다 한번씩 개최됩니다. 사직정에서는 월례비를 징수하는데, 궁도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과금을 제하고 남은 비용으로 대회 상품으로 마련해 사우들에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 사직정 연혁

1993년 1월 1일	협회 직할 정(亭) 건립 계획
1993년 8월 28일	준공
1993년 9월 1일	정식명칭 社稷亭(사직정)으로 대공에 등록, 강호준 초대 사두 취임
2000년 9월 2일	신정사 준공
2000년 10월 15일	제81회 전국체육대회 궁도 경기 개최
2021년 1월 4일	제16대 최용준 사두 취임
2023년 2월 26일	제17대 장오현 사두 취임



Q. 앞으로 사직정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부산에는 궁도 인구가 많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 등 멀리서 사직정을 방문하고 있는 궁도인들도 많은데요. 부산광역시 체육회와의 논의를 통해 부산 외곽에 궁도장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산 시민이 궁도를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Mini Interview

**마음 깊숙이
올림을 주는 스포츠,
궁도**

사직정 제17대 **장오현** 사두

장오현 사두는 부산 유일 국궁 9단을 보유한 명궁으로서, 현재 부산광역시궁도협회 부회장과 전국체육대회 궁도 부산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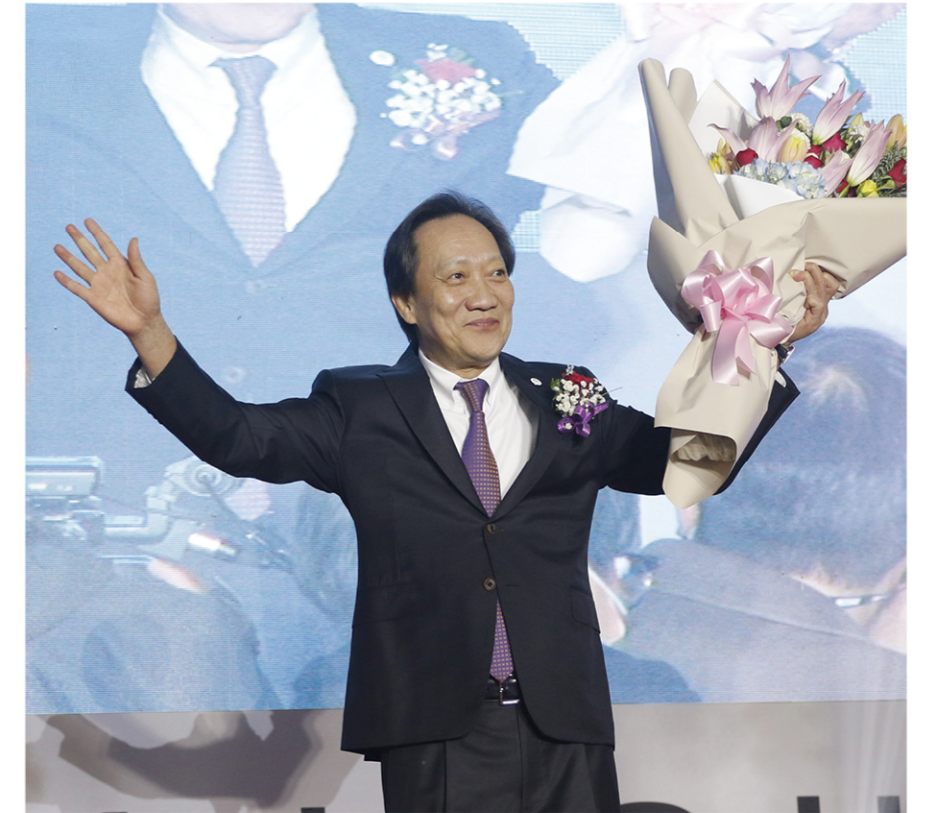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장오현 사두입니다. 궁도는 제대로 활을 쏘기까지 1~2달의 연습 기간이 필요로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직정에는 사두와 부사두 및 사범 2명이 있어, 궁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세심하게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활과 화살 등 장비도 전부 구비되어 있으니, 사직정을 방문해 매력 넘치는 궁도를 경험하고 생활 스포츠로 즐겨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른 시간 사직정에 나와 차분히 정신을 가다듬은 뒤 활시위를 당기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화살 소리가 들립니다. 145m 과녁에 화살이 '탁'하고 꽂히는 순간, 마음 깊숙이 울리는 감동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감동을 만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SSUE & FOCUS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 장인화 회장 취임

2022년 12월 15일 실시한 제27대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에서 장인화 회장이 당선되며 다시 한번 부산광역시체육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 2월 17일 취임식을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선포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부산시민, 체육인과 함께

제27대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는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로, 총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장인화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인프라 구성, 지역 상공계와 연계한 회원단체의 안정적 운영 도모,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진행된 투표에 80퍼센트가 넘는 선거인단이 참여하였으며, 총 유효표 382표 중 251표(65.7%)를 얻은 장인화 회장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장인화 회장은 "시민, 체육인들과 함께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체육 발전에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03년부터 부산체육과 인연을 맺은 장인화 회장은 부산광역시육상연맹 부회장,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등으로 체육계에서의 활약이 대단했다.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경영인으로서 쌓은 30년가량의 역량으로 지난 4년간 안정적으로 임기를 지낸 장인화 회장의 앞으로 4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속적인 변화의 물결 약속

장인화 회장은 재선 성공의 이유로 '변화의 물결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체육인들의 마음'을 꼽았다. 이렇듯 체육인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뚫을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민선 1기가 재정적·제도적 안정을 찾는 시기였다면 민선 2기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잡힌 운영과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참고로, 민선 1기 당시 장인화 회장은 운영이 아닌 경영의 체육회, 체육회 예산 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 체육 전문인 일자리 확대, 학교 체육의 자율성 보장 등의 공약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경영다운 경영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내 4개의 체육시설 운영, 지역 기업인들의 참여를 이끄는 등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기반과 더불어 지난해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이 발표한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이라는 공약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와 소통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장인화 회장은 2월 17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선포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민선 1기 업적

- 국비 공모사업 '스포츠과학센터' 유치하여 전문 선수는 물론 체육 꿈나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
- 부산광역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출범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각종 공모 사업 수탁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사업 영역의 다각화를 가능하게 함
- 16개 구군체육회 소속 109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관내 실업팀 선수와 학교 지도자 처우를 개선함

민선 2기 역점 사업 및 공약

-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보
- 교육청과의 적극 협조를 통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활용
- 국민체육센터 추가 조성 및 낙동강 유류 부지를 활용한 실버 스포츠 시설 조성
-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및 운동선수 기피로 인한 학생 선수 발굴의 어려움 극복
- 육상, 수영 등 기초 종목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챌린지 대회 확대 및 지속적인 후원금 유치
- 예산을 증액하여 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및 구군체육회와 종목단체의 근무 환경 개선

부산 League Royale ‘주짓수대회를 찾아가다’

2023 부산 리그로얄 그래플링 주짓수대회가 2월 11일 (토) 강서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박진감 넘치는 주짓수를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는 대회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글 _ 제2기 부산스포츠기자단 박은경



리그로얄만의 특색

리그로얄이 주최하는 2023 부산 리그로얄 그래플링 주짓수대회가 2월 11일(토)에 부산광역시 강서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리그로얄 대회는 다른 스포츠 종목의 대회와 차이점이 있다. 바로 경기장 바로 앞에서 주짓수의 현장감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들의 기술과 자세를 자세히 볼 수 있음은 물론 경기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시합은 4K 카메라로 촬영되고,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대회에서는 총 28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승급 체계에 따라 랭킹 시스템이 나뉜다. 2023 리그로얄 대회는 서울(5, 8, 11월)과 부산(2, 7, 12월)에서 총 6번의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색다른 성취감을 느끼다

리그로얄 주짓수대회는 승급(화이트, 블루, 퍼플, 브라운, 블랙), 연령(초등부-마스터), 성별 및 종목(노기, 앵글루트, 어덜트)에 따라 나누어 3~5분 정도의 경기를 펼친다. 이번 대회에는 브라운 벨트 순위 1위인 마이키 오후라 선수와 각 승급마다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에리크 메네긴 선수의 승부가 큰 화제였다. 두 선수는 현재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양한 대결을 통해 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주짓수는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최소한 수련 기간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자신과 상대방을 이겨 넘겨야 하는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인 만큼 성취감이 크다. 이런 주짓수는 남녀노소는 물론 체급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으며, 다이어트 및 호신술에도 도움이 되며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과 매력을 두루 갖춘 스포츠다.



강렬한 셔틀콕의 향연

배드민턴

BADMINTON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셔틀콕을 쳐서 주고받는 운동인 배드민턴.

셔틀콕을 제대로 스매싱하면 시속 300km대가 나올 만큼 배드민턴은 구속이 빠른 구기 경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배드민턴에 대해 알아보자.



배드민턴의 역사

배드민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1820년경 인도의 봄베이 지방에서 성행하던 '푸나(Poona)'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푸나는 코르크 마개에 깃털을 달아 만든 물건을 손으로 넘기는 놀이였다. 당시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육군사관들이 푸나를 배워 본국으로 들여온 것이 배드민턴의 기원이라고 본다. 이후 손 대신 라켓을 쓰는 형태로 변했고, 1973년 '배드민턴 하우스(보포트 공작 저택의 넓은 응접실을 개조한 코트)'라는 곳에서 현대 배드민턴이 시작되었는데, 이곳의 규격과 규칙이 영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운동 이름도 '배드민턴'이 되었다.

초기 배드민턴은 매너가 엄격한 귀족계급의 게임이었다. 깃이 높은 셔츠에 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실크모자를 쓴 채 품위 있는 차림으로 게임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품위는 현재까지도 배드민턴 경기의 정신적 지주를 이루고 있다.

1893년 영국 배드민턴협회의 창립과 동시에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1899년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되면서 덴마크, 스웨덴, 서독 등 유럽 각국은 물론 캐나다, 미국 등으로 확산 보급되었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에서는 배드민턴이 '국기'라고 할 만큼 인기 있는 스포츠다.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서 시범종목을 거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부터 코리아오픈(KOREA OPEN)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다.

한국 배드민턴의 역사

우리나라에 배드민턴이 보급된 것은 해방 후이지만, 당시 배드민턴은 놀이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1957년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조직되면서 경기로서의 배드민턴이 소개되었다. 1962년에 배드민턴협회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되었으며, 그해 제43회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81년 황선애 선수가 전영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개인단식 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다. 또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남자복식 금메달, 여자복식 금·동메달, 여자단식 은메달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배드민턴 세계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역대 올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금 6, 은 7, 동 6개를 획득하며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으로서도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전국 동호인이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활성화된 대중 스포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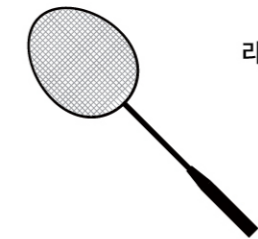
배드민턴 규칙

셔틀콕과 라켓



셔틀콕

- 셔틀콕은 베이스에 16개 깃으로 고정
- 중량 : 4.74~5.5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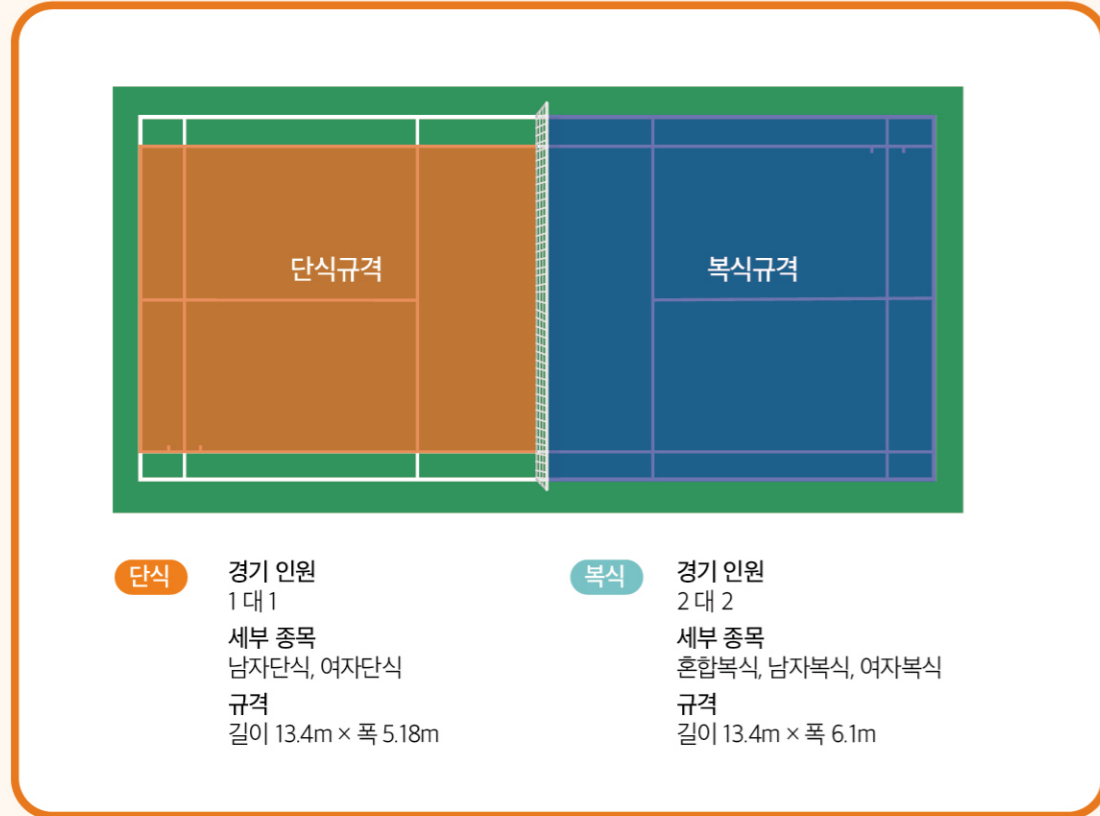


라켓

- 손잡이, string면, 헤드, 샤프트, 스트로(목), 프레임(자루)로 구성
- 라켓 프레임은 핸들 부분을 포함해 전체 길이 680mm, 전체 폭 230mm를 넘어서는 안 됨

◆ 단식과 복식의 차이

코트



◆ 서브권과 코트 선택권

- 경기 전 양쪽이 토스를 하여 이긴 쪽이 첫 서브권 또는 코트 선택권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우선 선택권자가 서브권을 택할 시, 코트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돌아감)

◆ 3전 2선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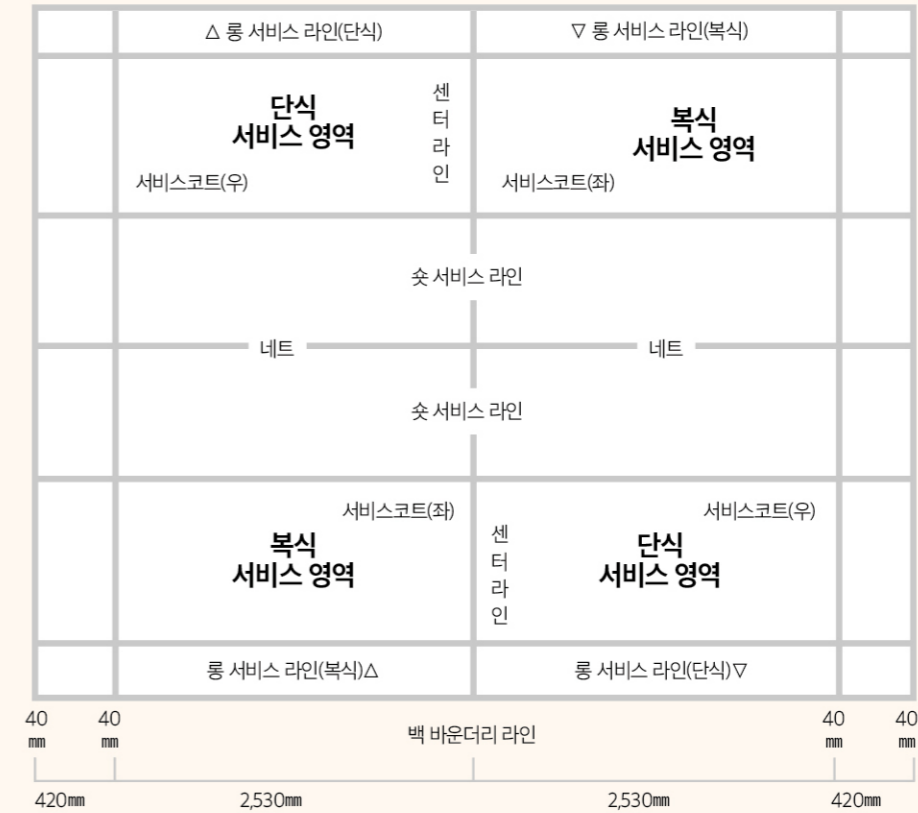
- 총 3세트 진행(세트를 이길 때마다 게임포인트 1점 획득) 중 2세트를 먼저 이긴 쪽이 승리
- 세트마다 21점을 먼저 얻는 선수 혹은 팀이 승리
(단, 양 팀 모두 20점으로 동점일 경우 2점 연속해서 득점하는 쪽이 승리하며, 듀스 상황이 29대 29점까지 진행된다면, 30점에 먼저 도달한 선수 혹은 팀이 승리)

◆ 코트체인지

-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코트 변경
- 3세트에서는 한쪽이 11점을 선취하면, 이후 코트체인지

배드민턴 서브 규칙

◆ 서브 구역



◆ 서브 규칙

단식/복식 공통

- 서브는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
- 점수가 짝수나 0일 경우 오른쪽에서, 홀수일 경우 왼쪽에서 서브를 넣음
- 숏 서비스라인에 셔틀콕이 떨어지면 서브 실패

복식

- 첫 서브를 넣는 퍼스트 서버를 정해 심판에게 알려줘야 함
- 서브를 넣는 A 선수가 득점한다면 다음 서브도 A 선수가 진행
- 서브를 시작하는 위치는 점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보고 이동
- 랠리 중 같은 팀 간의 위치는 바뀔 수 있으나, 상대가 득점하면 이전 서브 위치에서 시작



SPORTS JOB

스포츠 시장을 움직이는 스포츠마케터

2022년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위, 중학생 3위 희망 직업으로 '운동선수'가 꼽혔다.

하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은 운동선수만 있는 것일까?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 '스포츠 Job'.

이번 호에서는 스포츠 시장을 움직이는 '스포츠 마케터'에 대해 알아보자.



Sports Marketer

스포츠마케터란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말을 들으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가 아디다스(Adidas) 제품을 착용하는 장면이 떠오를 것이다. 메시는 월드컵 출전 5번 만에 2022 카타르 월드컵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음은 물론, 36년 만에 조국 아르헨티나를 정상에 올려놓았다. 메시의 후원사인 아디다스는 스포츠 브랜드 업계 1위 나이키(Nike)와의 후원 대결에서 승리하며 'Impossible is nothing' 브랜드 슬로건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처럼 자신과의 싸움이나 고난을 극복한 스포츠 스타가 주는 감동은 해당 브랜드 제품 이미지에 고스란히 녹아든다. 이 때문에 스포츠마케터는 스포츠 선수(혹은 팀)가 지닌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기를 활용해 마케팅을 한다. 즉, 스포츠를 매개체로 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대화하는 직업이 '스포츠마케터'이다.



스포츠마케터가 되려면

스포츠마케팅은 무한의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포츠용품 판매하는 일부부터 스포츠를 이용한 광고 활동이나 스포츠 중계권 관련 사업, 스포츠 유치, 선수 관리 등 모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포츠마케터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유리한 점이 많다. 각 종목 경기의 특성과 스포츠 팬들의 반응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 스포츠마케팅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연결하는 창구이기에 요구하는 바를 조화롭게 이끌어 내려면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스포츠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마케터가 되기 위해 특정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되며,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마케팅, 광고홍보학, 경영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획 전략을 가지고 광고주를 설득할 수 있다면, 광고주와 스포츠마케터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 관계는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소중한 내 눈건강을 해치는

안구건조증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봄을 느끼기 좋은 요즘.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안구건조증'이다.

봄철 환절기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쉽게 뻑뻑해지는 눈을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봄철 불청객, 안구건조증

눈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안구건조증'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빨리 증발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의 분비량이 감소해 발생한다. 최근에는 에어컨·선풍기·히터, 장시간의 독서나 핸드폰 사용 및 미디어 시청은 물론 장기간 콘택트렌즈 착용, 수면 부족 등의 생활 습관으로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날씨에 따라 눈은 영향을 받는데, 봄철 건조한 날씨는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기 쉽다. 더욱이 봄에는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등이 공기 중에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증상

1.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며 뻑뻑하다.
2.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까지 아픈 것 같다.
3. 눈이 쉽게 피곤하여 자주 충혈된다.
4. 눈부심이 있어 자꾸 눈이 감긴다.
5. 빛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진다.
6. 자고 나면 눈꺼풀이 들러붙어 잘 떼지지 않는다.

완화 및 예방법

눈 마사지 하기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선에서 분비되는 기름은 눈물에 있는 기름층을 형성해 눈물의 증발을 막아 안구건조증 증상을 완화한다. 눈 마사지를 해주면 마이봄선이 막히지 않고 투명한 기름이 나오게 해 줄 수 있다. 마사지 방법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래 눈꺼풀의 경우 아래 속눈썹 바로 아래 부위에 손가락을 가로로 대고 위로 밀어 올려준다. 반대로 위 눈꺼풀은 아래로 내려주면 된다.

눈에 온열 팩하기

마사지와 더불어 하루에 2~4번 정도 눈에 온열 팩을 하는 것이 좋다. 온열 팩은 온찜질 전용팩을 이용하거나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신 후 물기를 짜내고 5~10분간 눈을 덮어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

의식적으로 눈 깜빡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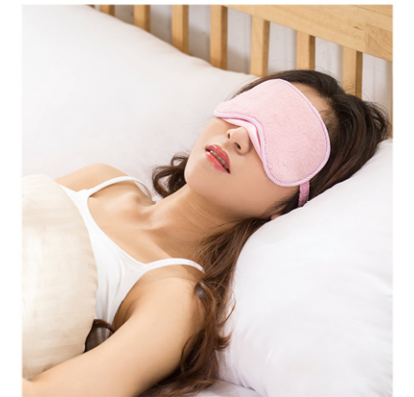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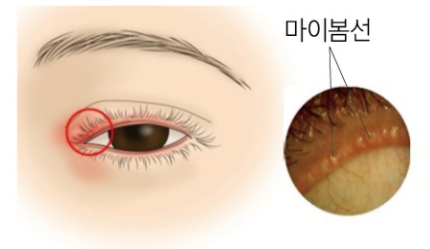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람은 1분에 15~20회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전자기기나 책 등에 몰두하고 있으면 꽤 오랜 시간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다 주어서 눈물막을 재생해 눈을 촉촉하게 보호하면 좋다.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대상 20초 바라보기(20-20-20 룰)

오랫동안 모니터를 보고 핸드폰을 가까이하면 눈이 긴장하기 쉽다.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기 사용, 독서 등을 피하고 중간중간 적절한 눈 휴식기를 가져야 하며, 특히 정기적으로 한 번씩 먼 곳을 보면서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미국안과학회에서는 20분마다 20피트(6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상을 20초 정도 바라보는 20-20-20 룰을 추천하고 있다.

안경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기

외부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 특히 햇볕이 내리쬐는 야외에서는 안경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인 이유

스포츠과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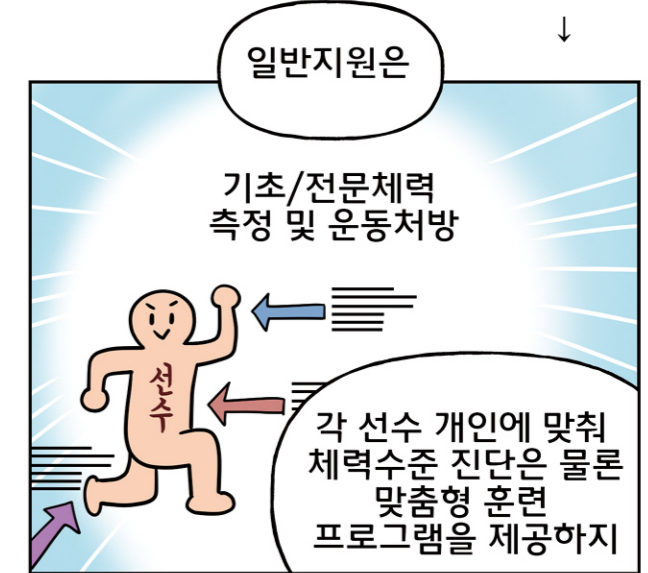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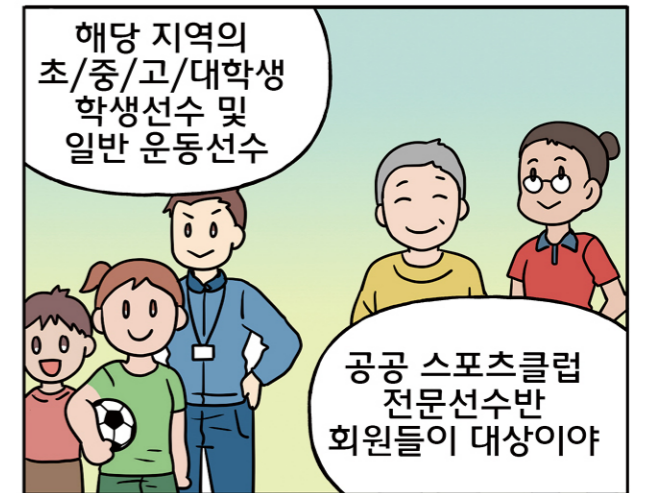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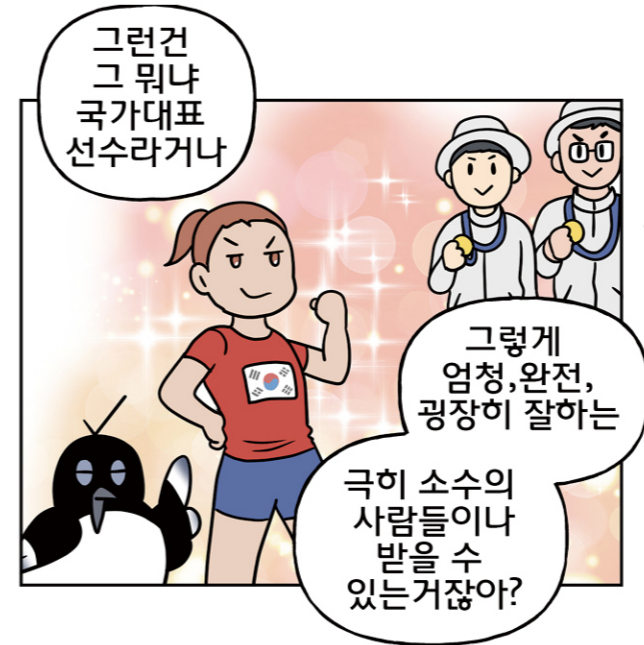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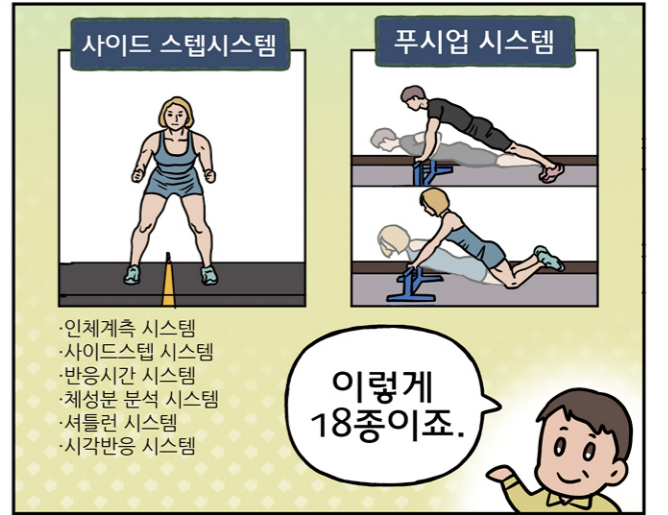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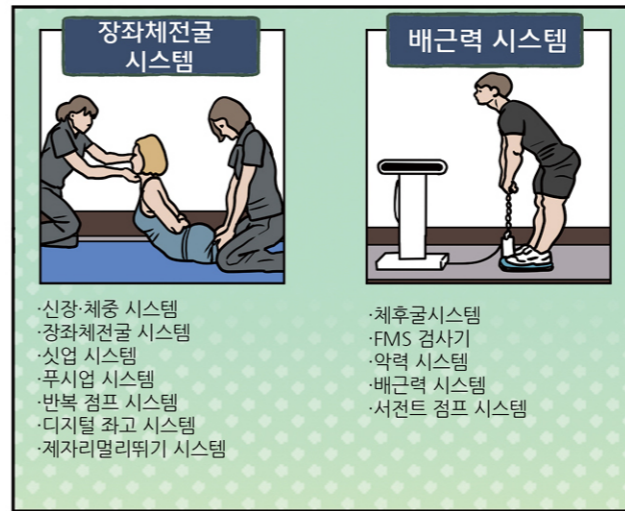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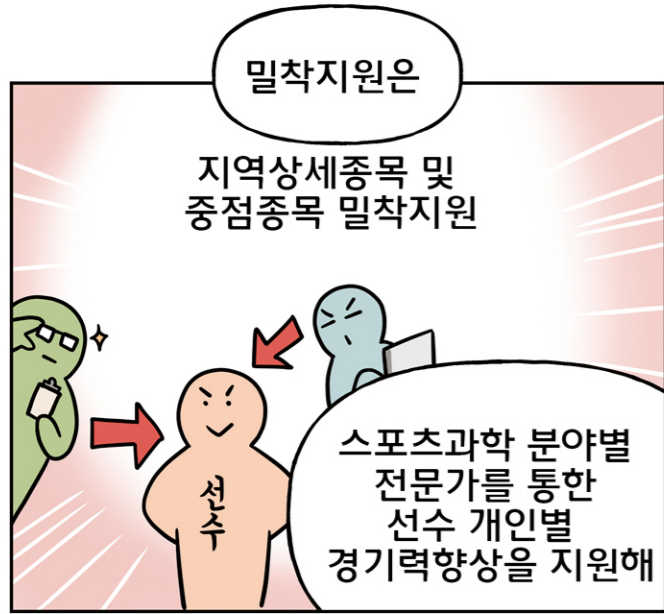
출처 _ 국민체육진흥공단

[백호랑 까치랑] 10화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인 이유. 스포츠과학센터



글/그림 ya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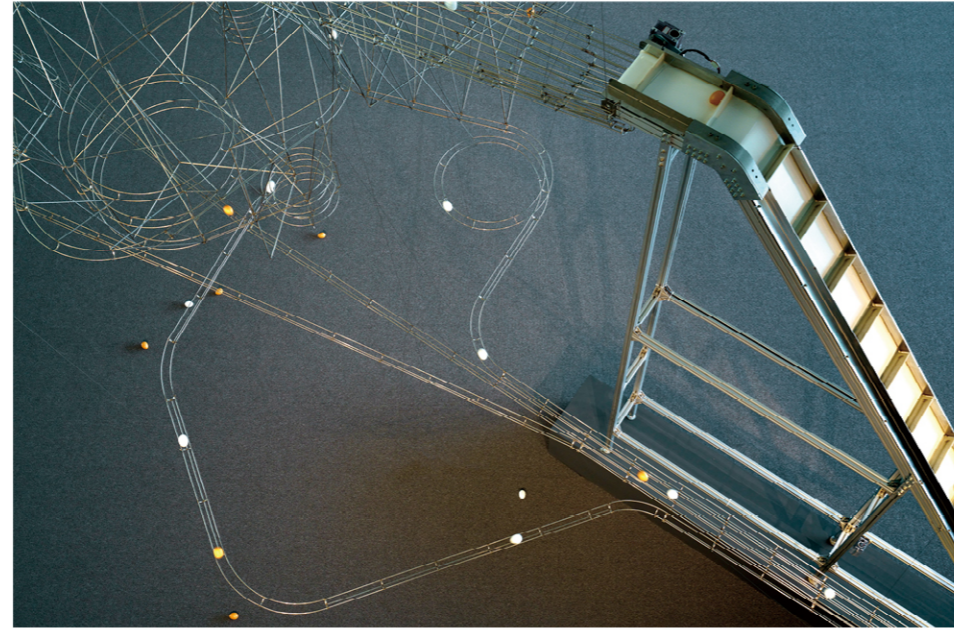
전시소개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일제강점기에서 현재까지 부산의 역사를 짚어 보다

전시 정보

기간 ~ 2023.05.07.(일) 까지
 관람시간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전시장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2층 소전시실
 입장료 무료



이창운, <편도여행>, 2018, 컨베이어, 스텐레스 스틸, 감속모터, 모형 계란, 스피드 컨트롤러, 700×700×360cm,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는 부산미술을 도시 부산의 출현과 성장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짚어보는 소장품 기획전이다. 우선은 부산미술과 역사를 관계 지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보편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 안에 놓인 한국근현대사 전개 양상 속에서 부산의 특수한 역사를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부산과 미술을 세계 보편의 자본주의 발전사가 내재한 한계와 모순이 드러나는 장소로서 주목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전시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전시 구성은 각기 제작연대를 달리하는 우신출의 <영가대>, 양달석의 <판자촌>, 최종태의 <침묵의 대화>, 이해주의 <무제>를 중심으로, 크게 “식민도시 부산”, “귀환과 피란의 부산향”, “전쟁특수와 산업화”, “부마민주항쟁과 노동자투쟁”이라는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그 주요 양상을 밝혀본다. 각각의 사건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의 발전과 모순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단계에서는 특정한 문제의식이 폭발적으로 분출돼 새로운 역사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시의 도입으로 제시되는 로비의 다섯 작품은 이 전시가 드러내려 하는 총체적 세계의 모습을 “근대”, “도시”, “자본주의”, “국가”, “역사”라는 각각의 주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이며 추상적으로 재현한다. 근대 문명의 발전과 인간성의 후퇴가 서로의 전제가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해방과 속박이 서로에게 조건이 되며, 결핍과 욕망이, 상실과 쟁취가, 자유와 평등이 불완전한 채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서로를 만들어 나가며 역사를 이루어내는 어떤 세계의 구성과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역사에서 보듯 모든 인간은 자신들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환경은 인간을 변화시켜 나간다. 미술작품 역시 순수미술의 영역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각 단계에 주어진 제약과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생산물이다.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는 이러한 전제를 따라 부산의 역사와 미술 또한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현재의 미술은 과거의 성과와 유산을 토대로 창조된다. 모든 것은 역사적인 관계 안에서 창조된다. 서로를 발전시키거나 때로는 후퇴시키며 재창조되고 재생산된다. 이러한 관점은 반대로 현재의 조건이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를 재창조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이번 소장품 기획전 역시 그간 미술관이 축적해 온 모든 활동이 만들어온 전제와 조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는 현재적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이 전시가 또 다른 역사적이고도 창조적인 관계 속에 놓여질 수 있길 희망한다.

자료·사진 제공 _ 부산시립미술관



이해주, <무제>, 1996, 캔버스에 유채, 130×194cm,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양달석, <판자촌>, 1950, 종이에 담채, 34×49.1cm,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BSC SPORTS NEWS



부산선수단,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역대 최다메달 35개 획득

스키 크로스컨트리 이의진 4관왕, 스키 알파인 강영서 3관왕

2월 17일(금)부터 20일(월)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울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8개를 목에 걸었다. 2015년 제96회 대회에서 획득한 31개 메달보다 더 많은 역대 최다메달인 35개를 획득하며 16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였다.

이번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이의진(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가 4관왕, 스키 알파인 강영서(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며 16년 연속 종합 5위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또한, 스키 크로스컨트리 허부경(부산진여고1) 선수가 3관왕, 스키 알파인 김동현(대연고2) 선수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 스키 크로스컨트리 전준상(신도중1) 선수가 동메달 3개, 빙상 쇼트트랙 최원석(명진중3) 선수가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학생선수들도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동계종목 불모지인 부산이 16년 연속 종합 5위와 더불어 역대 최다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 기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준 선수와 가족, 종목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개관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장인화)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22년 신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자 선정” 사업에 선정되어 5억 8천만 원 상당의 전문 장비와 매년 3억 3천만 원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2월 9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 1층에서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스포츠 생리·역학·심리·측정 등 분야별 박사급 연구진과 측정요원, 전문트레이너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운동부하검사, 등속성근관절검사, 무산소성 파워 검사, 젖산분석, 영상분석 등 29종의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운동 능력을 측정·분석하여 지역선수들에게 과학적인 체력분석 및 개인맞춤형 운동처방과 심

리검사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도자, 선수, 학부모가 함께하는 스포츠과학고실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스포츠과학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종목별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부산지역 전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 스포츠과학센터 부설 스포츠헬스케어센터와의 선순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종목별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과 경기력 향상 뿐 아니라 부산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제4대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 심재철 회장 취임식

중구체육회는 2022년 12월 22일(목)에 실시된 부산광역시 중구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제4대 심재철 중구체육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2월 24일(금) 진행된 취임식은 체육회 임직원 및 체육 동호인 등 내빈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중구체육회는 관내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장학금 일천만 원을 부산광역시중구장학회에 기부하였다.



서구체육회

2023년도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대의원 정기총회

서구체육회는 2월 17일(금) 서구청 2층 재난상황실에서 각 종목단체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 총 13명 중 12명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이날 2023년도 사업계획과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등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되며 성황리에 대의원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다.



동구체육회

2023년도 동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

동구체육회는 2월 27일(월) 2023년도 동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를 동구청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김진홍 동구청장, 동구의회위원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전차회의 요약보고 등 총 3개의 안건을 회의하였으며, 원안 승인하였다. 민선 2기 첫 이사회인 만큼 참석한 임원들을 소개하며 인사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영도구체육회

2023년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

영도구체육회는 2월 24일(금)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며 민선 2기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는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장 및 대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영의 영도구체육회장은 “영도구체육회가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후로 4년간 동고동락하는 대의원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열심히 하겠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진구체육회

2023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및 민선 1기 김호상 회장 송별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는 2월 10일(금) 2023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민선 2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회장 선거 결과보고로 시작되었다. 정기이사회가 마무리된 후 민선 1기 김호상 회장의 송별연이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임원·대의원·지도자는 김호상 회장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동래구체육회

민선 2기 동래구체육회 정길호 회장 취임식 및

2023년 동래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동래구체육회는 2월 24일(금) 민선 2기 정길호 회장 취임식 및 2023년 동래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길호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의 귀 기울여 체육인들과 늘 소통하여 보다 화합하고 활기차며 발전하는 동래구체육회를 만들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동래구 체육 발전과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남구체육회

2023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남구체육회는 2월 24일(금) 정회원단체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 등의 보고사항과 2022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남구체육회 정관 개정(안), 남구체육회 임원 선임(안) 등의 심의안건을 의결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북구체육회

민선 2기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김성호 회장 취임

2월 18일(토) 민선 2기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김성호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취임식 축하를 위해 각 종목별 협회장, 이사,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성호 회장은 “앞으로 북구체육회와 소속 종목 단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해운대구체육회

제1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월 14일(화) 제14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정관 일부 개정(안)과 회원종목단체 규정 전부개정(안), 보수 규정 일부 개정(안), 회장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등 총 4건의 심의 안건 의결 및 기타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하구체육회

2023년도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사하구체육회는 2월 24일(금) 민선 2기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이영수 회장을 의장으로 모시고 2023년도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임기 첫 출발을 알렸다. 대의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이영수 회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총회가 진행되었다.



금정구체육회

2023년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금정구체육회는 2월 24일(금) 통합 제4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규원 회장의 주재로 2023년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안건 보고 및 심의·의결하였으며, 각 회원종목단체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임기가 시작된 최규원 회장에 대한 축하 인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강서구체육회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정기이사회

강서구체육회는 2월 13일(월)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정기이사회이자 민선 1기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2022년 결산 보고, 2023년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안),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정관 개정의 건 등을 보고 의결하였으며, 기타 안건토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연제구체육회

2023년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

연제구체육회는 2월 14일(화) 부회장 5명, 감사 1명, 이사 17명, 총 24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차 이사회에서는 2022년 제6차 이사회 결과 및 2022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수영구체육회

민선 2기 황대성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장 취임식

수영구체육회는 2월 23일(목) 민선 2기 황대성 체육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황대성 체육회장은 간소하게 취임식을 진행하고, 절감된 비용 300만 원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구청에 기탁하였다. 황대성 회장은 앞으로 민선 2기 임기 4년 동안 수영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체육회 임직원과 함께 더욱 활발히 활동해 나갈 것을 전했다.



사상구체육회

민선 2기 강진태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장 취임식

2월 17일(금)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민선 2기 강진태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은 체육회 임원, 회원, 지역 내 기관·단체장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태 회장은 '함께하는 사상구! 소통하는 체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2기 사상구체육회는 새로운 체육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장군체육회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

기장군체육회는 2월 24일(금) 제3대 최상철 회장님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행사인 2023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처리와 임원선임 및 각종 위원 선임을 완료하였으며 우수 회원단체인 정관읍체육회, 기장군배드민턴협회, 기장군태권도협회에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 제20회 졸업식 진행



졸업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시작의 힘찬 첫발을 내딛는 제20회 졸업식 및 수료식이 2월 22일(수) 부산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열렸다.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 28명과 수료생 32명이 행사장으로 씩씩하게 입장하며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졸업장 수여식에는 문찬식 센터장이 졸업 및 수료생 60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며 축하의 마음을 나눴다. 이어서 동생들이 형님을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담은 송사, 졸업생들의 답사, 졸업가 제창 순으로 식이 진행되었다.

졸업생 구하은 부모님은 "3년 동안 아이가 유치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학부모가 졸업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포토존에서 가족이 함께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찬식 센터장은 "1년 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치원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여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졸업생들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함께하길 소망하며 초등학교에 가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길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상반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댄스를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진행한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4월부터 15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K-POP 댄스 수업으로 진행된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주말체육학교를 연계해 매년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통해 일상에 지친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일시 3월 28일(화) 11시

신청방법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https://sat.sportal.or.kr>) → 학교 밖 프로그램



강서구국민체육센터

2023년도 신설 프로그램 바디쉐이핑 강습 시작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바디쉐이핑 강습을 시작하였다. 바디쉐이핑은 맨몸이나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력 증가 위주의 소그룹 수업으로 헬스 프로그램을 등록했지만 운동 방법을 모르거나, 혼자서 운동하기 힘든 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회원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디쉐이핑 강습은 오전과 오후 두 타임으로 나눠 진행된다.

거점스포츠클럽



2023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



2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5박 6일간 부산남고등학교 펜싱장(남자부)과 부산체육고등학교(여자부)에서 2023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김은정 지도자의 인솔하에 남중부 6명이 합동훈련에 참

여하였으며, 기본동작, 전술훈련, 훈련 참가 팀 내 교류전 및 게임, 개인별 집중훈련 등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했다. 합동훈련을 통해 다가올 2023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이를 성과를 기대한다.

거점스포츠클럽



2023 김천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2월 23일(목)부터 28일(화)까지 5박 6일간 김천종합 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한국초등테니스연맹 주최 및 김천시 주관 2023 김천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김경원 지도자의 인솔

하에 초등부 8명이 시합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앞으로 테니스 꿈나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수상

조다인(남자 새싹부 복식 2위, 단식 3위)
천시후(컨설레이션 남자 단식 3위)

천시은(여자 새싹부 복식 3위, 단식 3위)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TRANSFORMING FUTURE
[주] 와인베스틸
강남 청담동 청담을 하리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00
http://www.finebesteel.com

TRANSFORMING FUTURE
[주] 외안인터내셔널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corea.com

TRANSFORMING FUTURE
동일철강 [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6-1
Tel: 051-322-1177 Fax: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바렐 전기 아연 아연니켈 합금 표면처리 전문업체

Electrical Barrel Zinc
Znic-Nickel Alloy Plating



동아플레이팅(주)
DONG A Plating Co., LTD.

<p>SQ인증서</p>	<p>IATF16949</p>	<p>뿌리기술전문기업</p>
<p>일하기 좋은 뿌리기업</p>	<p>이노비즈 확인서</p>	<p>메인비즈 확인서</p>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가길 20
부산청정도금센터 101, 107, 108, 111호
전화 | 051-263-2170 팩스 | 051-972-2173
E-mail | donga1089@dongaplating.com

<http://www.dongaplating.com>



케이블카 그 이상의 즐거움!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VR 스카이스윙



케이블카 뮤지엄



다이노 어드벤처



파트너(띠규어) 갤러리



어린이놀이터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오션 테마파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공룡과 사진찍고, 소원도 빌어보고, 짜릿한 VR체험까지!
즐겁고 색다른 문화 콘텐츠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문의 051) 247-9900



세상을 응원하는 방법

BNK 부산은행이

청년이 이끌어갈 미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꿈을 향해 내디딘 힘찬 첫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열정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청년의 든든한 파트너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B스타트업챌린지, 썸인큐베이터, 청년직기술타운 등 청년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의 열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